천년 '차' 매력에 풍덩… '축제 보성' 세상 즐거움 다 있네

다향대축제 3~7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티 파티 등 체험 다양
서편제소리축제·마라톤·요트대회·어린이날 행사 등 통합대축제로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천년 차의 유혹, 보성의 프러포즈'를 주제로 3~7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주요 차 생산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차의 생활화,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확달라진 축제 보성차 무궁무진한 변신 체험

보성군은 차 문화를 다양하게 즐기는 시대 욕구에 발맞춰 보성차의 무궁무진한 변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차를 활용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개막식은 제47회 보성군민의 날과 함께 보성공설운동장 주무대에서 지난 1월 자매도시를 맺은 하동군과 '다원결의' 퍼포먼스로 문을 연다.

올해 축제에서 눈여겨볼 핵심 콘텐츠는 ▲애프터눈 티 파티 ▲보성애 물들다 ▲서울 속의 보성다향대축제 주간 ▲보성 속의 서울 차 체험 ▲보성차 만들기 ▲찻잎따기 등이다.

애프터눈 티 파티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든 보성차와 디저트를 함께 맛보고 보성에서 준비한 공연과 이벤트를 대규모 인원이 함께하는 찻자리 이벤트로 꾸며진다.

보성티마스터컵은 보성차를 기반으로 한 식음료의 비주얼, 맛과 향, 창의성, 시장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고 최고의 식음료를 선정하는 경연대회다.

보성애 물들다는 한국차문화공원 북측 차밭에서 지역민이 준비한 카페 음료, 소반 도시락, 생태 꾸러미 체험 등 감성 소풍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찻잎 따기와 차 만들기는 보성군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차밭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차를 따고 만들어 볼 수 있다.

보성군은 보성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축제를 구현하고자 녹색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한 방문객에게 햇차, 새싹 볼펜 등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드레스코드 그린'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차문화공원 곳곳에는 쉬어 가기 좋은 디자인 그늘막, 쿠션 소파가 구성돼 있으며, 남북측 차밭에 감성적인 촬영 공간이 만들어진다.

차 향기가 그윽한 차밭에서 직접 차를 따고 덖은 차를 마시는 체험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 구매한 차를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다구 세트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국차문화공원 품평관에서는 보성차를 지역별 브랜드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서울·제주 티 브랜드 체험관이 운영된다. 품평관 광장에서 퓨전한복, 테마 한복, 개화기 의상을 대여해 의상을 바꿔입고 차 한 잔의 여유를 느껴 볼 수 있다.

보성다향대축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가치를 알리기 위한 굿즈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보성다향대축제의 캐릭터 상품과 보성의 특색이 담긴 기획 상품 8종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대표 축제가 총출동하는 통합대축제로

이번 축제는 보성 대표 축제가 총출동하는 통합대축제로 개최된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마라톤·요트대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행사, 데일리콘서트·드론라이트쇼 등 다채로운 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4일부터 6일까지 보성군 문화예술회관과 판소리성지에서 명창 추모제 및 추모 공연, 명인·명창 고수 경연대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등으로 열려 인재 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간다.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4일 보성체육공원 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

2024년 한국옵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는 4일부터 이틀간 보성율포솔밭해변에서 2개(옵티미스트, 토파즈) 종목 12개 부(초등·중등·일반)의 레이스 경기를 진행한다.

제20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인 웅치면 일림산에서 열린다. 철쭉 제례와 산림문화 행사, 숲속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환상적인 풍광 속에서 즐길 수 있다.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는 오는 5일 한국차문화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사진 만들기, 풍선아트, 도전골든벨, 경품 추첨, 청소년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제2회 데일리콘서트는 4일부터 6일까지 보성역 일원에서 열린다.

드론라이트쇼는 4일 데일리 콘서트 이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으로 나아갈 기틀을 만든 보성군 열선루에서 천년의 보성 차를 보여주는 빛의 향연으로 펼쳐진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대한민국 녹차 수도 보성에서 열리는 이번 다향대축제를 통해 모든 이들이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보성차의 멋과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보성차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다향대축제에서는 차 문화를 다양하게 즐기는 시대 욕구에 발맞춰 보성차의 무궁무진한 변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보성차 만들기 체험 행사 모습. 〈보성군 제공〉

여수시, 내년까지 상·하수도 공간정보 고도화

지리정보시스템 DB 수정·갱신
올해 돌산읍·충무동 등 4곳 추진

여수시가 내년까지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740㎞ 공간정보 자료의 정확도를 개선한다.

'상·하수도 GIS(지리정보시스템) DB(데이터베이스) 수정·갱신' 사업은 내년까지 4년간 국비 포함 총 65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상·하수도 측량·탐사를 통해 지하 시설물의 경로·심도 등 위치 정보와 속성 자료를 수집·체계화해 지하 시설물의 정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지난 2022년부터 화장동, 중앙동, 학동, 신기동 등 8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했다.

사업 3년 차인 올해는 돌산읍, 충무동, 공화동, 만흥동 4개 지역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여수시는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30일에는 '3단계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사업 시행사와 실무협의회는 구체적인 수행 방안, 최신 공간정보 기술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공간정보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도관 파열 및 싱크홀 발생, 굴착공사 등으로 지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지난 30일 연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공간자료 정확도 개선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관계자들이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광양 농특산물로 MZ 입맛 유혹한다

시, 망덕포구에 먹거리존 '별 헤는 강' 개소…아이스크림·빵 등

광양시(시장 정인화·앞줄 왼쪽 네 번째)가 최근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망덕포구 먹거리존' 개소식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 망덕포구에서 매실 아이스크림, 광양 쑥 붕어빵, 불고기빵 등 MZ세대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광양시는 지난 29일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망덕포구 먹거리존 '별 헤는 강' 개소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광양시의회 의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망덕포구 먹거리 공간 '별 헤는 강'은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에서 착안해 이름 지어졌다.

대지면적 454㎡(137평), 건축면적 89.1㎡(27평), 연면적 157㎡(48평)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광양시가 건립하고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해 임대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매실 아이스크림과 광양 쑥 붕어빵, 불고기빵 등 광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전부리를 만날 수 있다. 수제청 에이드와 커피류, 김부각, 매실 제품류 등도 판매한다.

'별 헤는 강'은 연중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망덕포구 일대에는 배알도 섬정원, 윤동주 유고보존 가옥, 섬진강이 흐르는 별 헤는 다리 등 관광명소가 많다. '별 헤는 강' 개소로 방문객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MZ세대 입맛에 맞는 소비공간으로 '망덕포구 먹거리존'을 조성했다"며 "선정된 임대운영자 또한 청년 창업자로 지속적인 젊은 감성의 조리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먹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만정원서 승마체험

11~12일 현장 신청받아 진행
5월 매 주말 '미니말 포토존' 운영

순천시가 오는 11~12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승마체험 행사를 연다.

승마체험 행사는 11~12일 이틀간 순천만국가정원 스페이스브릿지 하부 동천둔치에서 현장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순천승마장과 국제승마장 등 민간 승마장 2곳과 협업해 진행한다.

이달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미니말 포토존'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1m 이하 작은 말과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말 교감, 먹이주기 체험, 말 장난감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행사장에는 안전한 체험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동물 복지를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은 역사적으로 팔마비(八馬碑)를 비롯해 상사 마륜리(馬輪里), 황전 월평마을 마미등(馬尾嶝)과 같은 말(馬) 관련 이야기가 많은 곳"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승마 기회를 제공해 공익적 차원에서 승마 문화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 경찰, 지역 치안 현안 소통

광양 수사파트너십 포럼 개최

광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지역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양 수사파트너십 포럼〈사진〉'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수사파트너십 포럼은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해 주민과 경찰이 더 관심 있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원 광양경찰서장 등 내부 위원 9명과 외부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경찰발전협의회, 안보자문협의회, 자율방범대, 지역 이·통장, 녹색어머니회, 청소년육성회, 방범연합회 등도 동참했다.

참여 위원들은 전세사기, 보험사기, 교통사고 등 범죄의 종류와 피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현재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에 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병윤 광양경찰서장은 "일상생활에서 범죄화될 수 있는 암수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찰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소셜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경찰-시민의 좋은 협업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3일간 1만5000보 걷고 기념품 타고

고흥군 4~6일 '치매극복 건강걷기' 모바일 앱 '위크온'에 인증 사진

고흥군이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열리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치매극복 한마음 건강걷기'를 비대면 방식으로 연다고 1일 밝혔다.

걷기 대회에는 고흥군민이라면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주민의 건강을 높이고 치매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했다.

고흥항공우주축제가 열리는 사흘 동안 1만 5000보 걷기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5000보 이상 걸으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축제 현장 체험 인증 사진 2장을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밴드에 올리면 참여가 마무리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선착순 참여자 200명에게 기념품을 줄 예정이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이번 행사가 치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